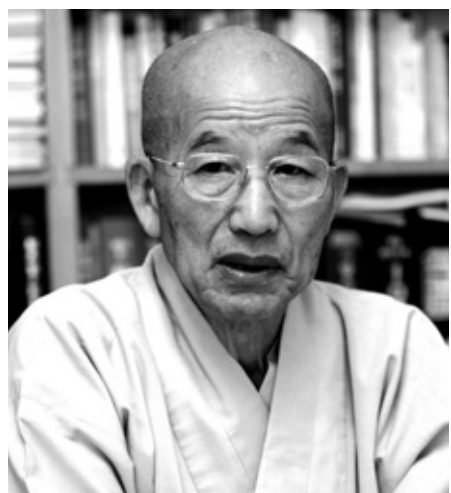


# “스님, 저희를 두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입적  
9월29일 오전 8시40분 석남사에서  
10월3일 용주사에서 원로회의장



대상을 받았다.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으며, 이듬해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정무 스님은 “내가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왔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 법사를 역임했다. 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종정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포교

## 정무 스님 행장

1931년 전북 군산 출생  
1958년 군산 은척사에서 전강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선사를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 수지  
1963년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66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87년 속리산 북천암에서 3하안거 성만  
1968년 영주 포교당 주지

1970년 3대 중앙총회의원  
1971년 수원 용주사 주지  
1974년 4대 중앙총회의원  
1978년 5대 중앙총회의원  
1980년 6대 중앙총회의원  
1981년 조계종 중앙총회 선거관리위원  
1993년 대구 법왕사 회주  
1983년 여주 신덕사 주지  
1999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  
2000년 안성 석남사 주지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주대  
2008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

조계종 원로의원 도천 스님 입적  
9월 28일 오후 1시10분 태고사에서  
10월 2일 화엄사에서 원로회의장



화계사 조실 도천 스님이 9월 28일 오후 1시 10분 주석처인 금산 태고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83년, 세수 101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월 2일 구례 화엄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나신 도천 스님은 19세에 “도를 이루겠다”며 금강산 마하연에서 수월 스님의 제자 묵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년 간 금강산 마하연 신계사 묘향산 유점사 범암사 등에서 수행해 온 스님은 전정으로 금강산이 복한의 수중에 들어가자 남으로 내려왔다.

스님은 범어사와 내원암 칠불암 해인사 선방을 거쳐 금강산과 산세가 비슷한 대둔사 태고사에 방부들이고 공양주 소임을 지냈다. 태고사에 빨치산이 들어오자 묵언을 하고 7일 단식을 하다 마지막으로 태고사에서 나왔다. 스님은 ‘난리통에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제대로 도량을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6·25전쟁으로 불에 타 아무것도

도 없는 태고사에 1962년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태고사 터에 움막을 하나 짓고 나물죽을 끓여 먹으며 40년간 두문불출 불사를 계속했다.

스님은 묵언을 지키고 계행이 정정하며, 철두철미한 보살행, 백장청구야 따라 오로지 일만 할 뿐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 ‘수월가풍’을 지켜왔다.

도천 스님은 “나는 깨친 것이 없어 수미산 주인집으로 머슴 살라 갈것여”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도천 스님 행장

1910년 평안북도 철산 출생  
1929년 마하연에서 묵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 수지  
1949년 금강사 마하연사 만회암, 묘향산 상원사, 해인

사 퇴실당, 도봉산 망월사, 강화 보문사, 안산 내원사, 부산 범어사, 하동 칠불암 이자선방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  
1962년 태고사 주지  
1992년 천은사 방장선원 조실, 화엄사 연기암선원 조실, 태안사 원각선원 조실, 화엄사 선동선원 조실 지남  
2004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

# “숲·생태체험 프로그램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어청위, 주5일 수업제 시행 앞두고 열린 토론회

“사찰 주변의 학교나 지원 센터, 수련원 등과 연계를 맺어 창의적 체험활동, 국제성취포상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석두 동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총장)

“교회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5일제 활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찰은 산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동원 상임이사, 청계사 주지 성형 스님)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이하 어청위, 위원장 계성)는 ‘불교 어린이·청소년 포교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9월 28일 불교중앙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5일제 수업을 활용한 포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청위에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5일 수업제 활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어린이포교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석두 사무총장은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사찰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사찰에서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찰에서 얻을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면 가까이 찾아온다”며 “한문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해남 미황사의 ‘한문학당’과 청소년을 위한 집중명상법으로 인기가 높은 개포동 금강선원 등의 사례를 발굴해 사찰의 규모, 지리적 특징, 지도자 현황 등 조건이 유사한 사찰에서 적용 가능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찰과 종단이 해야 할 어린이 포교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찰은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 토요일 문화학교를 개설하거나 어린이 일요법회를 토요일 오후로 변경해 법회 후 불교신행, 인성교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종단은 정부법령이나 지침, 타종교의 대응 방법 등을 신속하게 인지해 법회현장에 접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법회지도사와 특정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형



성 및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청계사 주지 성형 스님은 직접 어린이 포교현장에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줬다. 스님은 “각 사찰마다 예산은 천차만차이다. 재정이 부족한 사찰은 매우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 가르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찰이 영어, 음악, 한문교육을 초빙해 가르치는 건 소용이 없다. 숲·생태체험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영 동대사대부여교 교법사는 ‘청소년 포교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법사는 동대사대부여교에서 2011년부터 시행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명상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주 수업내용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돼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삼급학교 입시 자료로 활용 된다”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정명은 화계사청소년법회 지도교사는 사찰만의 매력도를 점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지도교사는 “명상을 통한 집중력 강화훈련,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의 연계로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지역 특색활동과의 접목 및 봉사활동 진행으로 사찰 청소년법회의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 ‘법구경’에 회사 살리고 키우는 묘법이

유피화 성공관대 교수, ‘삶의 지혜와 행복찾기’ 강연

“스티브 잡스처럼 현대의 이상으로 떠오르는 성공한 기업가들에게는 바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상상력은 창조론의 가장 기본으로, 이런 창의성은 바로 선(禪)불교와 같습니다.”

지혜로운여성(이사장 김애주)과 여성인재개발센터(센터장 황수경)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9월 19~25일 인문학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모색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삶의 지혜와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릴레이 형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9월 20일에는 유피화 성공관대 경영학과 교수(사진)가 ‘인문학과 현대의 기업경

영’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피화 교수는 “기업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상상력’에 있다”며 “두바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시인이다. 이처럼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은 경영의 활력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빠어난 문학작품은 상상력이라는 보물 창고와 같다”며 “일리아드 오디세이 셰익스피어 만해 한용운 스님 마명의 붓다차리타 단테의 신곡 삼국지 열국지 등은 모두 경영에 영감을 주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며, 경영전략과 리더십의 교과서다”고 설명했다.

인간 상상력의 집대성인 문학작품 감상이 경영자의 삶과 경영을 더 넓고 깊게 그리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 교수는 “만해 한용운 스

님의 시는 깨달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영감이다”라며 “깨달음은 오직 인간만이 이를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시대의 컴퓨터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를 구분 짓는 기준이 기업문화라고 말 할 만큼 기업경쟁력의 궁극적인 밑바탕은 최고경영자의 철학이 스며있는 기업문화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성공적인 기업가 라인홀트 뷔르트 역시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동기유발이 되지 못한 직원들이 일할 때 보다, 비록 기계는 낡고 공장은 허름할지라도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때가 효과 효율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아함경> <수타니파타> <법구경>를 비롯해, 기독교의 <신약성서> <구약성서>, 유교의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기업인들이 철학적 성찰을 생활화하고 사교



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책으로 꼽았다.

유피화 교수는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날이 더 중시해야 하는 현대의 경영자들에게 인문학과 인문학 소양은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 “자비는 결국 내게 베푸는 것”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템플스테이 서포터즈 김태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태균 학생(사진)은 봉사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다. 그녀는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 함께하며 도움을 나누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부처님은 제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만물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자 합니다.”



봉사 통해 삶의 행복 느껴  
고마워 하는 사람 보며 보람

김태균 학생은 현재 대불원에서 템플스테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다. 사찰이 낯선 사람들은 템플스테이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그럴 때도 그녀가 나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참가자와 사찰 관계자들의 수고했다는 한 마디를 들을 때면 그동안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

김태균 학생은 “참가자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도 느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템플스테이에 익숙한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서 서포터즈에 지원했을 만큼 타인과의 소통에서 행복을 느낀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참가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오히려 그곳 학생들에게 가슴 뭉클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고, 우리 나라보다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제3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성료

제3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가 9월 25일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성료됐다.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총 8개 국가에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이주민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700여 명이 모여 국가별 대항전을 펼쳤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부처님의 평등과 자비정신을 일깨워주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 장애물 경기 400m 계주 등을 비롯해 민속공연 및 참가자랑 경연, 각국 음식

장터 운영, 놀이마당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 우승은 몽골에게 돌아갔으며, 민속공연 및 참가자랑 경연은 네팔이 우승의 영예를 안아 눈길을 끌었다.

배광식 회장은 “이번 행사는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치러져 이주민들의 관심을 더 모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 포교에 헌신할 참신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10월 8일~12월 3일 ‘제23기 기초 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접수는 10월 8일 22시까지. www.idia.or.kr (02)722-2206 이은정 기자

# “배고픔엔 국경도 종교도 없다”

JTS 북한 전역 식량 지원

한국 JTS(이사장 법륜)가 평양과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JTS는 북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배고픔과 영양결핍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며 ‘더 주지 못해 미안해’를 9월 27일 인천항 제1부두에서 열었다. 프로그램 사회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안철수 서울대융합기술대학원장과 함께 법륜 스님과 친분을 맺고 있는 방승인 김재동씨가 맡았다.

JTS가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밀가루 300톤을 포함해 두유 36만개, 이유식 10톤, 탈지분유 2톤, 전지분유 30톤, 영양강화식품 33톤 등 20피트 컨테이너 50여대 분량이다. 지원 대상은 북한 내 9개 시·도 53개 시설의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 1만

2000명이다. 올해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은 가을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식량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밀가루가 북한의 전국 규모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TS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북한 전역의 취약계층에 지원 물품을 전달해왔다. JTS는 53개 시설에 물품이 전달되면 분배 후 직접 북한을 방문해 각 시설별로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JTS는 이를 위해 지원 후 어린이들의 발육상태와 지원물품의 소모량 등을 점검한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